

새 판 짠 광주FC, K리그 개막전 축포 쏠까

내일 광주서 수원FC와 격돌
올해부터 월드컵경기장 복귀
지난해 무패 행진 약속의 땅
시·도민구단 돌풍 격돌 주목
주전 선수층 부상 변수 발생



선수단 물갈이로 새 판을 짠 광주FC가 새 시즌을 맞아 홈 관중 앞에서 개막전 축포에 도전한다. 아시아 무대에서 무패 행진을 이룩한 약속의 땅에서 새 출발하는 만큼 올해 좋은 기운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광주FC는 15일 오후 4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개막전을 치른다. 올 시즌 개막전은 광주축구전용구장이 아닌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축구전용구장의 길이는 97m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 11월 개정된 시설 기준에서 요구하는 100~105m에 미달된다. 가용 좌석 역시 7800석에 그쳐 최소 기준인 1만석에 모자라고 매점과 선수 및 관중 의무실 등 필요 시설도 미비해 2027시즌부터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광주FC는 광주시, 광주시체육회와 삼자 협의를 통해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서만 사용하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올 시즌 개막전을 개최하기로 했고, 잔여 경기에 대해서도 구장 변경을 추진 중이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태극전사들이 준결승 진출의 역사를 이뤘던 장소인 광주월드컵경기장은 이정호 감독 체제에서의 광주FC에게는 약속의 땅이다. 창단 첫 아시아 무대 도전에서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 7-3 대승, 상하이 선화에 1-0 선



광주FC가 15일 오후 4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개막전을 치른다. 광주FC 박태준(왼쪽)이 지난 11일 중국 산둥성 지난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산둥 타이산과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7차전에서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승을 거두며 좋은 기운을 이어받았다.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가 열리는 것은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해 ACLE에서 선보인 무패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 강도 높은 동계 훈련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광주FC는 태국 코사무이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 뒤 광주에 복귀해 개막을 대

비했다. 부산교통공사축구단, 선문대 축구부, 안산그리너스FC와 연습 경기를 통해 단점도 충분히 파악했다. 하지만 새해 첫 경기에서는 몸이 덜 풀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산둥 타이산과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7차전에서 1-3으로 완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긍정적인 점은 개막에 앞서

보완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는 부분이다. 이정호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곧 리그가 시작하는데 새로운 해결책을 찾겠다. 감독으로서 벤치에서 창피했다"며 "저부터 반성하고 선수들과 올해 리그를 어떻게 치를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이런 경기를 다시는 보여드리

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교롭게도 개막전 상대인 수원FC는 시도민구단 돌풍의 주역이다. 광주FC가 2023년 K리그1 3위와 ACLE 진출, 2024년 ACLE 리그 스테이지 2위(6차전 기준)의 성과를 이뤘다면 수원FC는 2024년 파이널A 진출 등 나란히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2패. 수원FC는 강상윤과 한교원이 임대 복귀, 정승원과 노동건, 곽윤호, 정민기가 이탈했지만 장운호와 서재민, 황인택, 이지솔, 박용희 등을 영입하며 착실히 전력을 보강했다. 김은중 감독은 이미 지난 여름 공수 주축인 이승우와 권경원의 이탈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광주FC는 선수단을 물갈이하며 새 판을 짰다. 두현석이 대체 복무를 위해 임대됐고 베카 미켈타제와 김승우, 김경재, 이희균, 허을, 이근희, 정호연 등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적했다.

이적생들의 빈자리는 강희수와 박정인, 박인혁, 권성운, 이재환, 황재환, 홍용준, 곽성훈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들 위주로 이뤄졌다. 경험이 풍부한 민상기와 이스나이루 헤이스도 가세했다.

주축 선수들의 잇따른 전력 이탈은 변수다. 광주FC는 ACLE 재개에 앞서 브루노 올리베이라와 이강현, 최경록, 진시우가 이탈했다. 가브리엘 티그랑은 재활을 진행 중이고 빅토른은 올 시즌 복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 속에 산둥 원정에서는 변준수와 유재호가 경기 도중 각각 허벅지와 무릎에 부상을 입으며 피치를 빠져나왔다. 이정호 감독에게는 개막 직전에 변수이자 과제가 발생한 모양새인데 이를 극복하고 축포를 터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FC,곽성훈 임대로 장신 중앙 수비수 수혈

연령별 대표팀 출신 U-22 자원

K리그1 개막 전부터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광주FC가 장신 중앙 수비수이자 22세 이하 자원인 곽성훈(사진)을 영입하며 긴급 수혈에 나섰다.

광주FC는 수비수 곽성훈을 임대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2006년생인 곽성훈은 세일중-수원삼성 U-18(매탄고) 출신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23년 7월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일찌감치 프로 무대에 입성한 바 있다.

190cm와 82kg의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제공권과 몸싸움에 능한 곽성훈은 U-13 대표팀과 U-16 대표팀, U-17 대표팀을 두루 거치며 유소년 시절부터 재능을 인정받았다.

상대 공격 흐름을 차단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고 빠른 스피드를 지녀 원활한 빌드업 능력까지 선보이며 중앙 수비수 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활약한 다재다능한 선

수다. 준프로 계약 직전 매탄고의 2023 GROUND.N K리그 U-18 챔피언십 준우승에 기여한 그는 프로 진출 이후에도 2024 K리그 주니어 B권역 전반기 우승, 제45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우승 등 성과를 일궜다. 비록 데뷔전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곽성훈은 올 시즌을 앞두고 '매통령(매탄고+대통령)' 민상기가 열네 시즌 동안 사용했던 수원삼성의 39번을 물려받으며 대형 수비수 재목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곽성훈은 광주FC로 임대되면서 민상기와 호흡을 맞추게 됐다. 현재 주축 선수들이 잇따른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가운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성훈은 구단을 통해 "광주FC라는 좋은 팀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순간에 100%로 임하겠다. 광주FC 팬들에게 언제나 노력하는 선수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



호랑이 군단의 미래, 내달 13일부터 만난다

올해 퓨처스리그 일정 발표
서산서 한화 상대로 개막전



프로야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2025 KBO 퓨처스리그가 내달 13일 개막하는 가운데 KIA타이거즈는 서산한화이글스전용 연습구장에서 118경기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해 퓨처스리그 일정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퓨처스리그는 다음 달 13일 개막하며 서산(한화-KIA)을 비롯해 강화(SSG-

고양), 경산(삼성-NC), 상동(롯데-KT), 이천(두산-LG) 등 5개 구장에서 첫 경기가 열린다.

남부리그(KIA, 롯데, 삼성, 상무, KT, NC)와 북부리그(고양, 두산, 한화, LG, SSG)로 나눠 진행되는 올해 퓨처스리그는 상무가 16차전, KIA와 롯데, 삼성, KT, NC가 18차전, 고양과 두산, 한화, LG, SSG가 20차전으로 편성됐다.

인터리그는 상무를 제외한 남부리그가 6차전, 북부리그가 8차전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120경기인 상무를 제외하고 팀당 118경기를 치르며 9월27일까지 총 650경기가 열린다.

'연패 도전' KIA타이거즈 올해도



2025시즌 캐치프레이즈 확정

KBO 리그 연패에 도전하는 KIA타이거즈가 새 시즌 캐치프레이즈를 '압도하라! V13 Always KIA TIGERS'로 확정했다. (사진)

KIA는 이번 캐치프레이즈에 선수단과

프런트 등 모든 구성원이 팬들과 함께 하나 돼 열세 번째 우승과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과 방향성을 담았다고 13일 밝혔다.

2023시즌부터 KIA는 캐치프레이즈에 '압도하라'를 앞세우고 있다. 이는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선수단의 진취적이고 강인

한 기상을 표현한 것으로 올해도 같은 모습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또한 KBO 리그 사상 최다 우승 구단의 자부심을 V13이라는 숫자를 통해 보여주며 항상 팬들과 함께 타이거즈의 영광을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함축적으로 담았다.

규정 변화도 눈에 띈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이 전 구장에 확대 적용되며 체크 스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일부 구장에 시범 도입된다. 또 챔피언결정전이 신설돼 남부리그 1위 팀과 북부리그 1위 팀이 단판 승부로 최강자를 가린다.

한규빈 기자

한규빈 기자